

취재보도 원칙과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ifferences in Perceptions Regarding Principles of Journalism and Political Identity on Journalists' Psychological Burnout

백강희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Kanghui Baik(khbaek@hnu.kr)

요약

본 연구는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과 정치성향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차이가 기자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현직 기자 1,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언론인 의식조사 데이터의 2차 자료를 활용했다. 심리적 탈진은 MBI-GS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인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으로 구성됐다.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간 인식 차이는 7개의 각 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이에 대한 소속 언론사의 실행 정도 차이를 계산하여 측정했다. 분석 결과, 취재보도 원칙 중 객관성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가 클수록 기자들은 업무 환경에서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 모두에서 심리적 탈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차이가 클수록 냉소주의와 정서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중심어 : | 언론인 | 심리적 탈진 | 취재보도 원칙 | 정치성향 | 직무 스트레스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regarding principles of journalism and political identity between journalists and their news organizations are related to journalists' psychological burnout. To understand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secondary data of the 2017 South Korean journalists' consciousness conducted by the Korean Press Foundation. Psychological burnout consists of three subdimensions of MBI-GS: cynicism, lack of professional efficacy, and exhausti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regarding the principles of journalism between journalists and their affiliated news organizations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s in each of the seven reporting principles. This study found that the larger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objectivity between journalists and their affiliated news organizations,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experience cynicism, lack of professional efficacy, and exhaustion. The greater the difference in political identity between journalists and their own organization,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have greater cynicism and exhaustion.

■ keyword : | Journalist | Psychological Burnout | Principles of Journalism | Political Identity | Job Stress |

I. 문제 제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 강도, 업무 자율성 감소,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 등으로 사기 저하를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러한 사기 저하는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심리적 탈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7].

선행 연구들은 기자들이 겪는 심리적 탈진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주목해 왔다. 직무 스트레스는 주로 역할갈등 및 모호성, 부서 간 갈등[8]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정 권한 부재,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감 부재[5][9][10] 등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은 일반 직종의 업무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요인들이다 보니 기자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탈진의 유발 요인을 살펴보는 데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리적 탈진을 일으키는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보는 데 있어 기자의 업무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등 취재보도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의 정치성향은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어 왔다[11]. 기자들마다 다양한 보도 원칙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실제 취재보도 업무 중에서 겪는 심리적 탈진의 경험 정도가 다르다는 결과는[12][13]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보는 데 있어 보다 기자 업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자들은 기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속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불일치하다고 인식할수록 심리적 탈진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5]. 따라서, 취재보도 원칙과 관련하여 기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속 언론사가 추구하는 편집 방향이 다르다고 느낄수록 기자들은 업무 환경에서 더욱 큰 심리적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기자 자신의 정치성향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대한 판단이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14], 개인과 소속 조직의 가치 판단이 서로 영향을 주며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자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탈진의 요인에 주목하고, 취재보도 원칙 수행과 정치성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불일치 정도가 기자들이 업무 수행 시 경험하는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언론인의 심리적 탈진

심리적 탈진(psychological burnout)은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환경에서 겪는 스트레스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고갈로 정의된다[4][15]. 특히, 심리적 탈진에 대한 연구는 언론인의 업무 환경에 주목하였는데, 언론인의 업무 환경에서 겪는 심리적 탈진을 ‘번아웃’[6]이나 ‘심리적 외상’[12][13]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를 취재한 기자들은 취재보도 후 수면장애나 정서적 마비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2][13]. 신체적, 정신적 고갈상태인 심리적 탈진은 기자직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한편 조직전념을 저하시키고 이직 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4][7][16][17]. 신문사 편집국 종사자들이 비편집국으로 분류되는 일반 업무 종사자들에 비해 심리적 탈진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7]는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자직의 특수한 업무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심리적 탈진은 주로 MBI-GS 척도[18]로 측정되어 왔으며,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을 조사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4-7][17]. MBI-GS는 냉소주의(cynicism), 직업효능감(professional efficacy) 결여, 정서소진(exhaustion)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냉소주의는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이나 흥미 저하, 직무에 대한 본인 공헌도에 대한 냉소적 판단 등을 나타낸다. 직업효능감 결여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직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적 소진은 업무 수행

이전과 이후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서적으로 긴장하거나 메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나타낸다.

2. 언론인의 심리적 탈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

2.1.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들이 업무 환경에서 겪는 심리적 탈진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4][8][19]. 특히 언론인의 경우 직무 만족도가 높아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심리적 탈진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8][17][20], 탈진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직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7]는 다른 직종과는 다른 언론사 조직이 요구하는 특수한 업무환경이 심리적 탈진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기자들은 업무 자율성과 편집권의 독립성 결여를 심리적 탈진의 주요 원인으로 본 데 반해, 비편집국 소속 일반 업무 종사자들은 직무 자체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탈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7]. 즉, 기자들은 자신들이 조직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취재보도할 수 없다고 인식할수록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심리적 탈진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기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기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속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의 일치정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5]. 기자 개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즉, '회사문화'가 불일치한다고 느낄수록 정서소진과 냉소주의 등 심리적 탈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객관성, 정확성 등 취재보도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기자들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의 정치성향은 그들의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11]. 즉,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의 불일치는 기자 개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탈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의 특수한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그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유형을 기자 개인과 조직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치성향 차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직무와는 달리 기자직의 경우 취재보도 시 지켜져야 할 직업적 규범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자의 주된

직무인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기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 즉 직업관은 그들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속 언론사에서 그들의 직업관이 원활하게 구현되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탈진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를 취재한 기자들 중 취재 과정에서 사실 중심의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객관주의 직업관을 가진 기자들이 다른 이들에 비해 취재보도 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 탈진의 정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2][13]. 따라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는 냉소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는 직업효능감 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는 정서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1: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 중 어떠한 요인이 냉소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 중 어떠한 요인이 직업효능감 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취재보도 원칙 수행에 대한 인식 차이 중 어떠한 요인이 정서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은 기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9][21]. 기자가 소속 언론사의 이념적 보수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9], 특히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이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비해 더 보수적이라고 느낄수록 기자들은 저널리즘 질을 판단하는 데 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중

요한 잣대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1]. 흥미로운 점은 기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판단하는 데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이 보수적(혹은 진보적)이라고 판단할수록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 또한 보수적(혹은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14]. 결과적으로, 기자의 정치성향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할수록 취재보도 시 의견 대립 등 갈등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수행 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겪어 심리적 탈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가설 4: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정치성향 차이는 심리적 탈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1: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정치성향 차이는 냉소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2: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정치성향 차이는 직업효능감 결여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3: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정치성향 차이는 정서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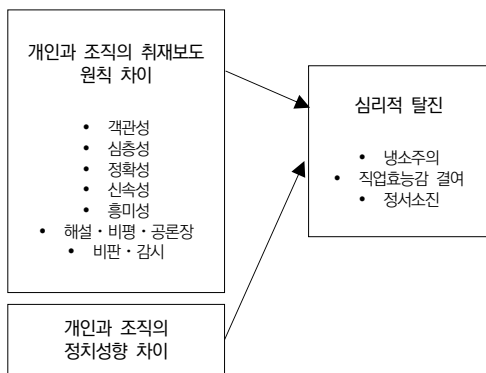


그림 1. 기자의 심리적 탈진, 취재보도 원칙 차이, 정치성향 차이에 대한 연구모형

III. 연구방법

1. 2차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년 언론인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였다. 언론인 의식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언론사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1989년부터 4년마다(2009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이다. 2017년 자료는 가장 최신 자료이다. 설문 조사는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의 256개 언론사(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통신사) 소속 1,677명 기자가 참여했다. 표본 중 남성이 1,218명(72.6%), 여성이 459명(27.4%)이며, 경력은 1-4년이 380명(22.7%), 5-9년이 402명(24%), 10-14년이 307명(18.3%), 15-19년이 237명(14.1%), 20년 이상이 351명(21%)이다.

2. 연구변인

2.1. 독립변인

언론인의 직무스트레스는 취재보도 원칙과 정치 성향에 있어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불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변인으로 구성됐다.

2.1.1. 개인과 조직의 취재보도 원칙 차이

본 연구에서 개인과 조직의 취재보도 원칙 차이는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소속 언론사가 각 원칙을 실행하는 정도의 차이로 조작적 정의되었다[표 1]. 취재보도 원칙은 7개 항목(객관성, 심층성, 정확성, 신속성, 흥미성, 사회 현안에 대한 해설·비평·공론장 제공, 정부·공인·기업 활동에 대한 비판 및 감시)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목에 대해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1 = 전혀 중요하지 않다, 5 = 매우 중요하다)와 소속 언론사가 각 항목을 실행하는 정도(1 = 전혀 실행하지 않는다, 5 = 항상 실행한다)의 차이로 측정됐다. 평균값이 클수록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실제 언론사의 실행 정도의 차이가 큰 것이므로 불일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는 비판·감시(M = 1.23)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확성(M = .99), 객관성(M = .95), 심층성(M = .95)순으로 차이가 컸다.

즉, 기자들은 비판·감시, 정확성, 객관성, 심층성 등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소속 언론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차이가 가장 적은 원칙은 신속성(M = .11)으로 나타났다.

2.1.2. 개인과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

개인과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는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과 소속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의 정치성향 간 차이로 조작적 정의되었으며[표 1], 각각 10점 척도로 측정되었다(0 = 가장 진보, 10 = 가장 보수). 평균값이 클수록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 값(M = 1.60)이 0 보다 크다는 것은 기자 개인이 소속 언론사는 대체로 보수 경향을, 기자 개인은 진보 성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표 2].

표 1. 연구변인의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심리적 탈진	냉소주의	직무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이나 흥미 저하, 직무에 대한 본인 공헌도에 대한 냉소적 판단
	직업효능감 결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직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태
	정서소진	업무 수행 이전과 이후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서적으로 긴장하거나 메달라가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개인과 조직의 취재보도 원칙 차이		기자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소속 언론사가 각 원칙을 실행하는 정도의 차이
개인과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과 소속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의 정치성향 간 차이

표 2. 독립변인의 유목

독립변인		M	SD
개인과 조직의 취재보도 원칙 차이 ¹⁾	객관성	.95	1.04
	심층성	.95	1.07
	정확성	.99	.91
	신속성	.11	1.08
	흥미성	.19	.10
	해설·비평·공론장	.73	.10
	비판·감시	1.23	1.07
개인과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 ²⁾		1.60 ³⁾	2.40

1 취재보도 원칙 7개 항목을 모두 합산한 값은 다음과 같다. 평균(M) = .79, 표준편차(SD) = .69, Cronbach's α = .83.

2 기자와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기자: 평균(M) = 4.39, 표준편차(SD) = 1.79, 언론사: 평균

2.2. 종속변인

2.2.1. 심리적 탈진

심리적 탈진은 MBI-GS[18]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척도는 언론인의 심리적 탈진을 살펴본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4][5][7]. MBI-GS는 심리적 탈진을 냉소주의('내 일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가 든다' 등), 직업효능감 결여('내 생각에 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등), 정서소진('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등)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요인 마다 5개씩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은 모두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됐다⁴⁾.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4개 문항이 MBI-GS의 하위요인과 동일하게 분류됐다. 요인추출과 요인회전 방식으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를 각각 이용했다.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이상인 경우 동일 요인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MBI-GS의 냉소주의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항목 중 '내 업무에만 충실하고 다른 일로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요인 적재치가 0.5 이하로 나와 요인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됐다. 변량에 대한 총 설명량은 68.81%였다[표 3].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8(냉소주의), .89(직업효능감 결여), .88(정서소진)로 모두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2.3. 통제변인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6][7][17][20], 탈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성별(1 = 남성, 0 = 여성)과 경력(1 = 1~4년, 5 = 20년 이상, M = 2.87, SD = 1.45)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했다.

(M) = 6.0, 표준편차(SD) = 2.0.

3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의 값에서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값을 감하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정치 성향 차이는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 - (기자의 정치성향)으로 계산하였다.

4 냉소주의와 정서소진의 두 항목은 값이 높을수록 탈진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나 직업효능감 결여는 그 반대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직업효능감 결여 항목은 역코딩했다.

표 3. 심리적 탈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측정문항	요인		
	1 냉소주의	2 직업 효능감 결여	3 정서 소진
내 일이 무언가에 공헌하는가에 대해 보다 냉소적으로 되었다	.761	.158	.316
현재 맡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직무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게 되었다	.835	.179	.213
내 일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가 든다	.863	.168	.132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다 소극적으로 변했다	.772	.225	.070
내 생각에 나는 일을 아주 잘 하고 있다	.106	.860	.016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057	.870	.063
나는 조직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106	.851	-.030
현재의 직무에서 가치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254	.754	-.026
직무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12	.777	.102
일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에는 완전히 소모된 느낌이다	.152	.003	.863
업무로 인해 완전히 탈진되었다고 느낀다	.229	-.012	.862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나를 긴장시킨다	.155	.000	.811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을 느낀다	.483	.180	.623
업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메릴라감을 느낀다	.576	.102	.591
고유값(Eigenvalue)	5.83	3.10	1.40
설명량(%)	24.10	23.82	20.90
누적설명량	24.10	47.91	68.81

IV. 연구결과

1. 연구가설 1, 연구문제 1

가설과 연구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의 인식과 소속 언론사의 실제 실행 정도 간 차이는 냉소주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나, 모든 변인을 투입했을 때(모형 3), 인식 차이 요인 중 객관성($\beta = .11, p < .001$), 심층성($\beta = .07, p < .05$), 신속성($\beta = -.09, p < .01$), 흥미성($\beta = .06, p < .05$), 비판·감시($\beta = .10, p < .01$)만 냉소주의와 정적 관계를 보여(연구문제 1), 가설 1은 부분 지지되었다. 즉, 기

자들은 객관성, 심층성, 흥미성, 비판·감시 기능을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러나 소속 언론사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행하지 않는 편일수록, 반면 기자들이 신속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그러나 소속 언론사에서 실행하는 편일수록 냉소주의를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연구가설 2, 연구문제 2

반면,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실제 실행 정도 간 차이는 직업효능감 결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객관성($\beta = .06, p < .05$)과 정확성($\beta = .11, p < .01$)만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표 4]). 이에 따라 가설 2는 부분 지지되었다. 이는 기자들은 보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언론사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만큼 원칙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 직무 수행 시 직업효능감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가설 3, 연구문제 3

마지막으로,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실제 실행 정도 간 차이는 정서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객관성, 심층성, 정확성, 신속성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연구문제 3, [표 4]). 또한, 객관성($\beta = .07, p < .05$)과 심층성($\beta = .07, p < .05$)은 정서소진에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연구문제 3), 정확성($\beta = -.07, p < .05$)과 신속성($\beta = -.07, p < .01$)은 정서소진과 부적인 관계를 보여, 가설 3은 부분지지 되었다. 즉,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에서 보도의 객관성과 심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소속 언론사에서 이에 대해 실행하지 않는 편일수록, 반면 정확성과 신속성에 대해 기자들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나 소속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실행되는 편일수록 기자들은 정서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설 1~3과 연구문제 1~3의 결과는 탈진의 유형에 따라 그에 영향을 미치는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 차이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객관성은 탈진의 세 가지 유형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해설·비평·공론장에 대한 인식 차이는 탈진에 유의한 영향을 주

지 않았다.

4. 연구가설 4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정치성향 차이는 취재보도 원칙 차이를 모형 3에 투입했을 때 정서소진과 냉소주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4는 지지되었다[표 4].

구체적으로, 기자들은 소속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의 정치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반면 자신의 정치성향은 진보에 가깝다고 판단할수록 냉소주의($\beta = .08, p < .01$)와 정서소진($\beta = .06, p < .05$)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설 4-1과 4-3은 지지되었다. 반면 개인과 소속 조직 간 정치성향 차이와 직업효능감 결여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가설 4-2는 기각되었다.

표 4. 심리적 탈진 예측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독립 변인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
모형1	성별 (0=여자, 1=남자)	-.17***	-.09***	-.18***
	경력	-.06*	-.22***	-.11***
	R ²	.04***	.07***	.06***
모형2	성별	-.16***	-.09***	-.17***
	경력	-.08**	-.24***	-.12***
	객관성	.12***	.07*	.07*
	심층성	.07*	.04	.07*
	정확성	.03	.11**	-.07*
	신속성	-.09**	-.02	-.07**
	흥미성	.06*	.03	.02
	해설·비평·공론장	-.02	.03	.04
	비판·감시	.12***	-.04	.06
	△ R ²	.07***	.03***	.02***
모형3	성별	-.16***	-.09**	-.17***
	경력	-.08**	-.24***	-.12***
	객관성	.11***	.06*	.07*
	심층성	.07*	.04	.07*
	정확성	.02	.11**	-.07*
	신속성	-.09**	-.02	-.07**
	흥미성	.06*	.03	.02
	해설·비평·공론장	-.03	.03	.03
	비판·감시	.10**	-.05	.04
	개인과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	.08**	.02	.06*
△ R ²	.01**	.00	.00	
R ²	.11**	.10	.08*	

N=1677. ***p < .001, **p < .01, *p < .05, 수치는 다중 회귀분석의 표준화 계수 β 값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가 생각하는 취재 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 차이와 정치성향 차이를 기자들이 업무 환경에서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유형으로 보고, 두 요인이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심리적 탈진을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각 차원과 취재보도 원칙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칙에 대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기자 개인의 인식과 소속 언론사의 실행 차이는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러한 결과는 특정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차이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났다(연구문제 1~3). 예컨대, 객관성, 심층성, 신속성, 흥미성, 비판·감시, 신속성에 대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인식 차이는 냉소주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연구가설 1). 또한, 정확성의 경우 직업효능감 결여와 정서소진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연구가설 2~3). 이러한 결과는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불일치할수록 심리적 탈진의 위험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1]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나아가 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에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 간 불일치 정도가 클 때 심리적 탈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객관성은 냉소주의, 직업효능감 결여, 정서소진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됐다(그림 2). 즉, 기자들은 취재보도 원칙 중 보도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소속 언론사의 편집 방향 등이 객관성을 실행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할수록 기자들이 업무 환경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겪어 심리적 탈진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세월호 참사를 보도한 기자들 중 객관주의 직업관을 가진 기자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더 큰 심리적 탈진을 경험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2][13]와 일치한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취재보도의 객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직업관이 소속 조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심리적 탈진에 노출되는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과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 간 차이가 클수록 심리적 탈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가설 4). 특히, 정치성향 차이는 냉소주의와 정서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2). 즉, 기자들이 자신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판단할수록 업무 수행 이전과 이후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기자직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은 소속 언론사의 이념적 보수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기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9]와 일치한다. 또한, 언론사의 정치성향은 보도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22][23]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의 불일치 정도는 기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10][21]. 반면, 정치성향 차이는 직업효능감 결여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과 소속 조직의 정치성향 차이는 자신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나 직무 상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앞서 밝혀진 대로 직업효능감 결여에는 기자의 업무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취재보도 원칙에 대한 인식 차이가 더 큰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2차 데이터에서 소속 언론사의 취재보도 원칙 실행 정도는 설문에 참여한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소속 언론사의 실행 정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⁵ 마찬가지로, 소속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에서 드러나는 정치성향은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기에 실제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과는 다소 다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⁶ 이는 선행연구

[14]의 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05, 2009, 2013년 ‘언론인 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은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은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기자 개인의 정치성향이 소속 언론사의 정치성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가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자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유형을 기자직과 가장 밀접한 직무인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며, 취재보도의 원칙과 정치성향에 대한 기자 개인과 소속 언론사의 인식 차이가 그들의 심리적 탈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언론인의 직업 환경을 조사하는 데 있어 기자 개인과 소속 조직 간 가치 불일치 정도를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언론사 차원에서 기자의 심리적 탈진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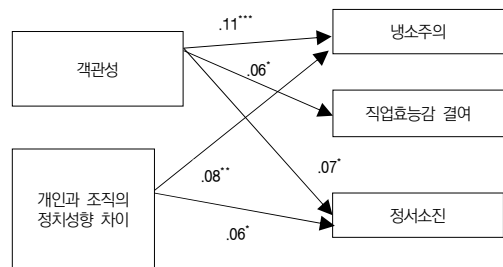


그림 2. 기자의 심리적 탈진, 취재보도 원칙 차이, 정치성향 차이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 요약

참 고 문 헌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사용한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소속된 언론사는 위에서 언급된 원칙을 각각 어느 정도 실행하고 계신지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6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인 의식조사’에서 사용한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귀하가 소속된 언론사의 편집방침이나 논조의 이념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 언론인 2009: 제11회 기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09.
[2]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의 언론인 2013: 제12회 언론인 의식조사, 2013.

[3]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언론인 의식조사: 제13회 기자 의식조사, 2017.

[4] 김동률, “방송사 기자들의 심리적 탈진에 관한 연구-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3권, 제1호, pp.7-49, 2009.

[5] 전오열, “지역 언론인의 심리적 탈진에 관한 연구-전북기자협회 회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직무 스트레스, 직업 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pp.263-306, 2016.

[6] 정유진, 오미영,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변아웃’에 관한 연구-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1호, pp.216-241, 2015.

[7] 정재민, 김영주, “신문사 종사자의 탈진에 대한 연구-편집국과 비편집국 종사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5권, 제2호, pp.252-276, 2011.

[8] 박생규, 조성재, “언론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척도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일간지 취재기자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6155-6162, 2013.

[9] 배정근, “방송사의 소유와 재원 구조 차이에 따른 기자의 자율성 인식 비교: 자원의존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3호, pp.148-159, 2018.

[10] 조수선, 정선호, “언론인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성별과 직위 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8권, 제1호, pp.215-234, 2017.

[11] P. J. Shoemaker and S. D. Reese,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1996.

[12] 배정근, 하은혜, 이미나,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5호, pp.417-445, 2014.

[13] 이미나, 하은혜, 배정근, “세월호 취재기자의 심리적 외상의 지속양상과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5호, pp.7-31, 2015.

[14] 남재일, 이강형, “한국 기자들의 이념 성향과 이념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한국의 언론인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8권, pp.7-41, 2018.

[15] H. Freudenberger “Staff Burnout,” J. of Social Issues, Vol.30, No.1, pp.159-165, 1974.

[16] 장해순, 김창남, “뉴스콘텐츠 제작자들의 역할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209-218, 2010.

[17] S. Reinardy, “Female Journalists More likely to Leave Newspapers,” Newspaper Research Journal, Vol.30, No.3, pp.42-57, 2009.

[18] W. B. Schaufeli, M. P. Leiter, C. Maslach and S. E. Jackson, “MBI-General Survey,” In C. Maslach, & S. E. Jackson, M. P. Leiter (Eds.). Maslach Burnout Inventory manual (3rd e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6.

[19] 박종무, 박동수, 이재강, 안성익, “콜센터 상담사의 감정노동행동과 이직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직무성과의 조절효과,”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1512-1530, 2014.

[20] B. B. Cook and S. R. Banks, “Predictors of Job Burnout in Reporters and Copy Editors,” Journalism Quarterly, Vol.70, No.1, pp.108-117, 1993.

[21] 홍주현, 최선영, “뉴스생산 환경 및 조직과 기자의 정치적 성향, 업무 수행 자유도가 언론의 전문성,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pp.209-220, 2017.

[22] 송인덕, “시청자와 방송사의 정치성향의 (불)일치가 방송채널 평가에 미치는 편향적 매체지각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00-314, 2018.

[23] 홍주현, 김경희,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3호, pp.162-177, 2017.

저 자 소 개

백 강 희(Kanghui Baek)

정회원



■ 2018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저널리즘, 소셜 네트워크, 글로벌 사회자본